

했다는 점도 의미가 큼니다.”

어쩌면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둔 가장 큰 성취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사업 성공을 위해 애쓰고 힘을 모은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말에서도 의례적인 수사 이상의 감격이 묻어난다.

‘번역은 국제적 감각의 어른 되기 위한 작업’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란 모토를 실현키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한국문학의 번역과 해외출판 지원, 한국 문학과 관련된 국제교류사업의 기획과 추진, 번역전문인력육성, 번역가 워크숍, 한국문학 연구 지원, 사이버 한국문학관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진 원장은 “‘우리 알기 금지’의 빗장을 풀어헤치고, 우리 문학을 다시 깨치며, 이를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소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긴 우리 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며, 문화적 배경을 외국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관 사업의 취지는 곧 진 원장 자신의 문화적 신념이기도 하다.

“문학 내지 문화가 나라 안팎으로 소통함으로써 한국인의 느낌과 생각이 세계인의 그것과 교집합적 조우를 이루게 됩니다. 이젠 곧 우리 문화를 다시 가꾸는 일이기도 하죠. 나아가선 성숙한 세계 문화의 한 주체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곧 ‘어른’ 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남다른 해석을 가하기도 했다. 해외의 선진 지성세계와 출판·저작물을 통한 피드백을 이루는 가운데, 지구촌 범용의 인식 체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벨상 콤플렉스’ 극복해야...유능 번역가 양성 주력

문학번역과 해외진출을 얘기할 때 으레 떠오르곤 하는 게 노벨문학상이다. 그러나 진 원장은 그런 ‘노벨문학상 콤플렉스’에 대해 통렬한 공박을 서슴지 않았다. ‘노벨상’ 자체를 염두에 둔 듯한 문학 행위에 대해 “천박하고 기만적”이라고까지 했다.

“더 이상 그런 ‘문화적 촛대’를 내지 않았으면 해요. 가치전도도 유만부동이지, 어떻게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문학은 문학에 그쳐야 합니다. 정히 의도하자면,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수단에 그칠지언정, 그걸 위해 문학이 충성해선 안 되죠.”

물론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진 문학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로지 사해동포적 ‘마인드’로 글을 쓰고, 작품 의제를 설정해 세계인의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역설적으로 그런 ‘기당찮은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서도 ‘번역 문화’의 선진화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이 뛰어난 자질의 번역가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외교통상부나 여성부 등 관계 부처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구할 방침이다.

“우리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 각국의 다양한 문학을 내국인들이 두루 맛보게 하는 것은 바로 사회 전체의 문화적 효용을 높이는 일입니다. 총체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기도 하죠.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우리’와 ‘남’의 경계를 허무는 원활한 ‘통역’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그런 일을 해나갈 겁니다. **▶**

취재_박경만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주빈국, ‘기관지원’에서 ‘상품’으로 인정 받는 계기

1980년대 이후 본격화... 한국 인지도와 번역 문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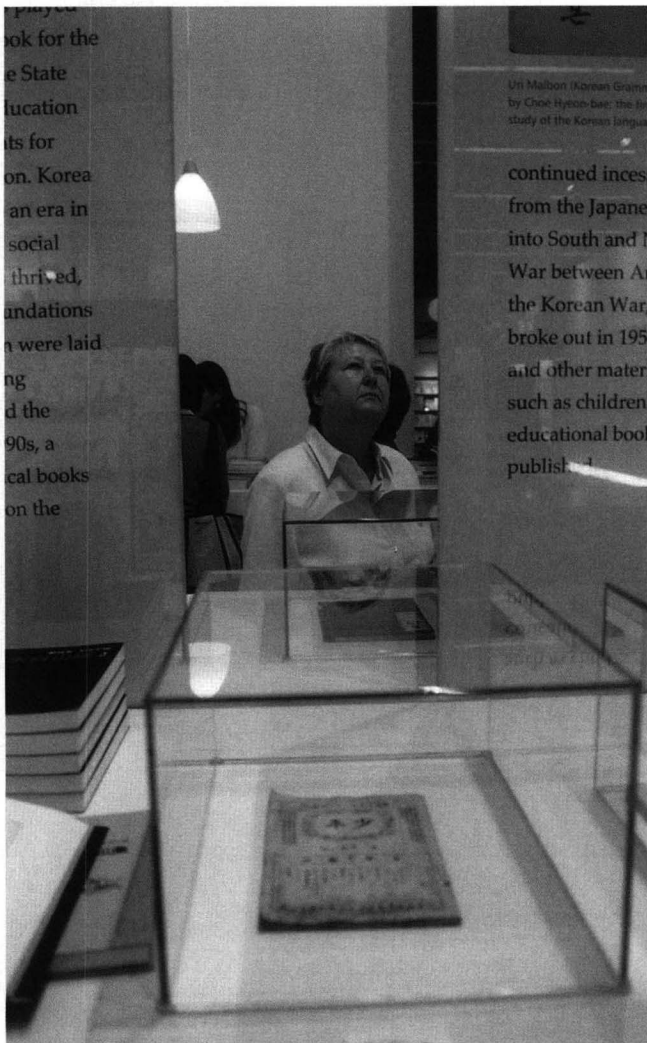
김윤진_ 한국문학번역원 사업2팀장

1889년 미국 푸트남 출판사에서 출간된 《한국 민담집》, 1892년 홍종우와 로니Rosny가 공역한 《춘향전》을 시작으로 한국문학작품이 해외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지 어언 백 년이 넘었지만, 그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품은 많지 않다. 일본과 중국이 노벨상 수상작가라는 세계적 인지도를 얻은 작가들을 배출한 것에 비하면, 그 두 나라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권역에 속한 한국문학에서 그와 같은 작가들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여러 모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듯하다.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무지와 무관심이 장벽

이는 한국전쟁,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발전,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 태권도 등을 제외하면 거의 한국에 대해 모르거나, 한국문학 심지어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체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태반일 정도로 한국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작용한 탓이다. 또 한국문학을 자국에 소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외국인 번역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 즉 문학 소개의 역사가 그 두 나라에 비하면 무척 짧은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과 중세 봉건적인 사고가 공존하는 기묘한 나라 일본은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국의 문화와 문학을 해외에 집중 소개해왔다. 중국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한국문학은 본격적으로 세계에 소개된 지가 사실 백 년은커녕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사실 한국문학의 소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문화체육부가 주도하여 내국인, 혹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역으로, 때로는 국내에서 때로는 해외에서 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한국문학 홍보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문예진흥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92년 대산문화재단 설립, 1996년 한국문학번역금고 설립, 2001년 문예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금고를 일원화한 한국문학번역원 설립을 통해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는 새로운 물결을 타게 되었다. 단순히 한국문학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세계 문학의 흐름 속에 편입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돼서야 한국문학 알리기 본격화

1980년대부터 비롯된 한국문학 해외소개에 개략적인 방향은 대개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즉 1980년대 선집 위주의 소개, 1990년대 중진 작가들의 집중적 소개, 2000년대의 새로운 세대 작가의 약진이다.

1980년대에는 개별적인 작가 소개보다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데 묶어 한국문학의 다양함을 알리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현대단편소설선》(영어, 하이네만 출판사, 1980)

으로 김동인, 현진건, 이효석 등을 소개한다거나, 《한국 중단편선》(영어, 라치우드 출판사, 1980)으로 여러 작가들을 소개하는 식이 대부분이었고, 개별 작가의 작품으로는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영어, 시사영어사, 1983 / 불어, 레오파르 도르, 1983) · 《올해》(영어, 키진 폴, 1989), 김원일의 《바람과 강》(영어, 시사영어사, 1988), 김주영의 《천둥소리》(영어, 시사영어사, 1989), 손장순의 《한국인》(불어, 라 광세 위니베르셀, 1985) 등이 고작이었다. 그나마 영어권 소개에선 국내 출판사 혹은 홍콩, 호주의 출판사도 끼어 있어 널리 유포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언어권 역시 영어와 불어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최윤/파트릭 모뤼스라는 숨은 공로자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여기에는 최윤/파트릭 모뤼스라는 번역팀의 숨은 공로가 있다.

탁월한 번역가이자 소설가이기도 한 최윤은 파트릭 모뤼스와 공역을 통해 이문열, 이청준 등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중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프랑스 악트 쉬드 Actes Sud 출판사를 통해 집중 소개하였다. 악트 쉬드 출판사도 아예 한국 컬렉션의 형식으로 이문열과 이청준 외 김승옥, 박완서, 윤후명, 이어령 등을 소개하기 시작하여 약 30종 이상을 간행하였다. 이와 함께 필립 피키에 출판사도 윤홍길, 오정희, 김성동 등의 작품들을 출간하여 한국문학이 유럽에서 읽힐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성기(?)를 이끌어낸 작가는 누가 뭐래도 이문열이다. 보편적인 주제, 논리적 전개로 추상적인 이념을 소설화하는 데에 탁월한 그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불어, 악트 쉬드, 1990)은 대뜸 프랑스 내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후 《금시조》(1990), 《그해 겨울》(1990), 《새하곡》(1991), 《시인》(1992), 《사람의 아들》(1995), 《황제를 위하여》(1998)가 연이어 출간되면서 프랑스 이외의 언어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와일리 에이전시가 직접 관리하는 그의 작품들은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터키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마인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몽골어 등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이문열, 이청준, 김승옥, 김춘수, 고은, 조세희, 황순원 등 소개

이청준의 《이어도》(1991) · 《예언자》(1991) · 《당신들의 천국》(1993) · 《그 노래 다시 부르지 못하네》(1999) · 김승옥의 《다산성》(1992) · 《60년대식》(1995) 등도 당시 소개되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촉발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인접한 유럽 국가로 확산되는데, 독일에서는 분단국가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소설가로서는 남북의 문제를 다룬 작가들, 특히 고은의 시와 이호철, 김원일의 소설이 널리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구상, 김춘수, 김광규, 김수영의 시집과 함께 헬가 피히트에 의해 아직도 번역 출간되고 있는 박경리의 《토지》, 이청

준, 오정희의 소설들이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에서는 유독 한국의 시인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이문열의 작품들과 함께 고은, 김춘수, 서정주, 박두진, 이상, 윤동주의 시집들이 각각 번역 출간되었다. 이 시기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무려 11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단일 작품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되었다. 영어권에서는 브루스 폴턴이라는 전문 번역가가 거의 독점 번역하다시피 하는 황순원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알려졌는데, 그의 작품들은 14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상품가치 인정받기 시작... 황석영, 페미니상 후보에

2000년대로 접어들어서도 한국 중진작가들의 약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해금과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좋을 황석영의 활약이 뛰어나다고 하겠다. 프랑스 쥘마 출판사와 에이전시 계약을 한 황석영은 《삼포가는 길》, 《한씨 연대기》, 《무기의 그늘》, 《오래된 정원》, 《손님》 등의 작품들이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으로 잇달아 번역 출간되면서 2004년도 페미니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정래의 《아리랑》이 해외에서는 출간되기 힘들다는 약점을 극복하고 프랑스 라르마탕 출판사에서 완역 출간되었고, 《태백산맥》이 계속 번역 출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0년대의 새로운 특색은 새로운 세대 작가들의 작품이 해외 출판사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와 분단 문제를 벗어나 현대인의 심리와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독특한 문체를 보여준 김훈, 이승우, 김영하, 조정래 등의 작품들이 프랑스, 독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한 '기관 지원'의 출판이 지닌 홍보적 성격에서 벗어나, 해외 출판사들이 한국문학의 상품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징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지 독자들과의 취향 중요... '프랑크푸르트', 새로운 호기

외국에서 호평받는 한국의 작품들을 보면 그러한 호평이 작품 자체의 뛰어난 문학성은 물론이거니와, 현지의 문학 풍토, 독자들과의 기대와 맞물림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황석영의 《손님》은 그 이데올로기적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험이 실험적 형식에 녹아든 것이, 《무기의 그늘》은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프랑스의 과거가, 《한씨 연대기》는 신산한 삶의 자취가 뛰어난 서술 능력으로 독자들과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이 그를 페미니상 최종 후보로 오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멕시코에서 출간된 바 있는 고은의 《선시집》이 스페인의 유명 출판사에서 재발간된 것은 간절한 문체와 절제된 언어로 동양과 동양사상, 특히 불교사상에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던 그들의 형이상학적 갈등을 풀어주었기 때

문이다.

김영하나 조정래가 특히 독일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한국이라 하면 분단과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작품들만 생각하던 독일의 젊은 독자들에게 문화적·지역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문예지를 주로 작품 발표의 지면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작가들로서는, 장편을 선호하면서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길 바라는 전 세계 독자들의 취향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2005년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으로서 호기를 맞은 한국문학계로서는 세계 출판시장에 더욱 깊숙이 그리고 넓게 진출할 일만 남은 셈이다. **한문**

사진 | 2004 프랑크푸르트도서전 · 프랑크푸르트 = 신동섭 기자